

## 토 론 회

### 언어학에 있어서의 이론과 자료

주 제 발 표 : 이 기 용(고려대)  
조 병 태(서울대)  
사 회 : 이 정 민(서울대)  
토 론 자 : 손 호 민(하와이대)  
이 익 섭(서울대)  
이 홍 배(서강대)  
장 석 진(서울대)  
Edward Keenan(UCLA)  
Robert Murray(중양대)

때 : 1985년 12월 13일

사회 : 오늘 토론회의 주제는 「언어학에 있어서의 이론과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런 제목을 잡게 된 것은 언어학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분야와는 달리 언어라고 하는 경험적인 사실,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경험과학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론과 자료간에 상호작용문제가 논의돼야 되겠고 또한 그 설명의 문제와 자료의 기술 문제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언어라고 대상을 잡더라도 인간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추상체로서의 인간의 언어가 있지 않고 개별언어로서 그것도 3,4천개 혹은 4,5천개 되는 개별 언어의 어느 것을 가지고 언어학을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로서의 언어와 자료를 지배하는 원리, 규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이론의 설정의 노력

사이에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정확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지마는 또한 자료를 정확히 찾아내기 위해서는, 찾아내려고 하는 자료가 무엇에 관련되는 것인가, 무슨 자료를 찾아낼 것인가 하는 것에 향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역시 이론에 있어서의 가설의 설정이어서 그러한 가설을 설정해가지고 즉 어떠한 연역체계로서의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비추어 다시 외계의 언어자료와의 관계가 어떻게 맞아들어가는가를 검증해야 될, 이러한 여러가지 필요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선생님께서 한 분은 주로 이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겠고 또 한 분은 자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참석자분들께서 여러가지 자신의 의견들을 발표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언어학에 있어서의 이론의 중요성에 초점을 두어서 이기용선생님께서 주제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